

테마칼럼

남도의 재발전

도시와 삶

건강과 생활

교육을 생각한다

KTIX는 광주발전의 약인가, 독인가



노경수

2014년 KTIX의 완전 개통이 인재들이 모여 들고,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 각지로 내보내는 한편, 세계를 향해 정보를 발신하는 허브역할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난 1일로 KTIX가 개통된 지 6년이 지났다. 2014년에는 서울~광주를 지금의 2시간40분에서 약 50분 정도 단축된 1시간32분에, 서울~목포는 1시간46분에 다닐 수 있는, '반나절 생활권'이 현실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일자리 및 유입 인구 증가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울과 수도권의 강한 흡인력에 따른 서비스 산업의 '블랙홀' 현상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 말 대구경북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KTIX 개통 5년, 대구지역 서비스산업의 변화'라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역 내 의료·교육·쇼핑·문화예술행사 등 서비스 산업들이 KTIX로 인해 오히려 지역 고객을 빼앗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KTIX가 대구와 서울 거리를 '100분 시대'로 앞당기면서 서울로의 경제적 유출, 이른바 '스트로(빨대)'현상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구지역민이 서울로 이동해 쇼핑하는 규모가 연간 2500억원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KTIX를 타고 원정쇼핑에 나서고 있다. KTIX를 통해 서울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대구지역 환자가 해마다 1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공연·전시회 등을 보러가는 지역 관객이나 서울 소재 대학들의 야간 교육과정에 진학한 'KTIX 통학생'들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경제적인 부분 외에도 전국이 서울을 중심으로 불과 2시간 이내 생활권으로 재편되는 추세가 지역문화의 기반이 되는 '장소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가 현재의 KTIX 체제는 기존의 '서울 중심성'을 더욱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지역의 도시문화는 서울의 문화로 단순화되고 획일화될 수밖에 없어 문화의 대외경쟁력도 상실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에 의한 부작용을 슬기롭게 극복한 사례로는 일본의 나고야가 있다. 1964년 고속철인 신칸센 개통 이후 사람과 돈이 도쿄 등으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나고야의 도시 위상은 추락할 수밖에 없었다. 섬유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지역경제를 이끌었던 나고야의 공장들은 하나둘 외지로 떠나거나 문을 닫아버렸다. 상가나 음식점들이 줄지어 폐업하고 도심에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라졌다. 그러나 나고야는 이 같은 위기 속에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냈다. '몸으로' 만드는 생산에서 '머리로' 만드는 생산으로 산업구조를 개혁하고 도시 내부 혁신, 개방화를 추진한 것이다. 인근에 도요타자동차가 있는 점을 활용해 자동차 연관 산업을 발전시켰고, 세계박람회 등 국제적 이벤트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면서 다시 나고야는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는 2014년 KTIX 완전개통까지 아직 준비할 시간을 가지고 있다. 새롭게 열릴 KTIX의 길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종합적인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는 곧 발전과 변역을 약속하지는 않는다. 새롭게 난 KTIX의 길에 무엇을 실어 나르고 어떻게 이용하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두 지역을 잇는 길은 지방통행이 아닌 양방향이어야 하며,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중요로운 삶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도권 울해 '초고속 통합적 특성화로 전국을 하나의 도시화'로 엮어내는 KTIX 경제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려는 모양이다. KTIX역만으로 사람, 상품, 정보가 모여들어 저질로 지역이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적극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선도 생산·서비스산업에서 자체 수요가 창출돼 수도권으로의 역집중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KTIX 개통효과와 극대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광주시도 부정적인 블랙홀 효과를 차단하고 지역을 특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료·쇼핑·문화예술 등 분야에서 서울과의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명품화·특성화·규모화할 수 있는 유도 및 지원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광주역과 송정역의 역세권을 대외경쟁력을 갖춘 쇼핑, 업무, 호텔·오락 중심지로 복합 개발하고 휴게시설·환승·주차시스템을 개선해 거점 관문으로 육성하는 종합적인 역세권 개발구상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2014년 KTIX의 완전개통이 광주지역에 인재들이 모여들고,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 각지로 내보내는 한편, 세계를 향해 정보를 발신하는 허브역할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정부, 건설발 지역경제 위기 방치만 할건가

광주·전남지역 관공관 건설사가 줄줄이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지역경제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1년여 사이에 시공능력 '빅 5' 가운데 4곳이 무너지는 등 지역 건설업이 거의 초토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 중견기업인 금광기업이 28일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소문으로만 나돌던 금광기업의 법정관리가 현실화되자 지역 건설업계는 패닉 상태다. 그도 그럴 것이 대주건설, 금호산업, 남양건설, 삼능건설, 금광기업 등 지역의 내로라하는 건설사들이 불과 1년3개월여 사이에 잇달아 쓰러졌기 때문이다.

이들 건설사의 부실은 지역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 수많은 협력업체와 관련업체의 줄도산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대량 실업, 소비 위축, 지역금융 부실화 등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건잡을 수 없는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산업기반이 열악한 지역경제는 뿌리 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방건설의 부실은 물론 건설사의 방만한 경영이 1차적 원인이라 할 수 있으나 정부의 책임도 크다. 수년 전부터 아파트 미분양으로 인해 지방건설에 '빨간불'이 켜졌으나 정부는 한 발 늦은 처방으로 일관해 부실을 키웠다. 정부는 옛것에 미분양 주택 4만가구 감축, '미분양 예방 시스템' 도입 등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일 뿐이다.

정부는 당장 건설발(發) 광주·전남지역 경제 붕괴를 막을 대책과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방경제 위기는 국가경제 위기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 국가경제가 안전한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하나 이는 광주·전남지역민에게는 먼 나라 얘기일 뿐이다. 정치권도 선거에만 눈이 멀게 아니라 민생사태에 빠진 지방경제 회생에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 홍보 지자체에 떠넘기다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홍보를 광역자치단체에 떠넘겨 물의를 빚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열린 시·도 관계관 회의에서 수질과 환경 등 각 분야 전문가와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정책자문단을 운영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지역실정에 맞는 4대강 홍보를 위해 자문위원들이 일선 학교와 지역주민 교육에 적극 참가하고, 언론 기고와 방송 출연까지 권고했다고 한다.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행안부의 이같은 지시를 지자체가 거부하기란 쉽지 않다. 전남도는 전문가 50명으로 '전남도 영산강 살리기 정책자문단'을 구성, 지난 27일 발족식을 가졌으며 광주시도 다음달 초 지역 전문가 27명으로 '광주시 영산강 살리기 정책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행안부가 이처럼 4대강 사업 홍보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낸 것도 이같은 점을 염려해서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센 것은 생태계 파괴 등 수질 악화를 우려해서다. 논란의 본질은 외면한 채 지자체까지 관여 홍보에 동원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이다. 그렇다고 4대강 사업을 총괄해 온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와도 사전협의 없이 홍보를 지자체로 넘겨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며 홍보를 강권하는 것 역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6·2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선거 쟁점에 대한 광범위한 홍보 활동은 표식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대강 사업 홍보보수를 선거 종료시까지 잠정 폐쇄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낸 것도 이같은 점을 염려해서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센 것은 생태계 파괴 등 수질 악화를 우려해서다. 논란의 본질은 외면한 채 지자체까지 관여 홍보에 동원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無等鼓

양심(良心·conscience)의 사전적 정의는 '선(善)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악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인간의 생리적(生得的) 능력의 총괄 개념'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얼른 개념이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흔히 논어에 나오는 군자삼락(君子三樂)을 얘기한다. 군자삼락이란 인성의 세 가지 즐거움을 말한다. 제일 락은 부모가 모두 생존해 계시며 형제가 무탈한 것(父母俱存, 兄弟無故)이다. 제이 락은 우리러 하늘에 부끄럽지 않으며 아래로 보아 남에게 부끄럽지 않는 것(仰不愧於天 俯不作於人)이고, 제삼락은 천하의 영재를 얻어 교육하는 것(得天下英才而教育之)을 말한다.

하늘과 땅에 부끄럽지 않다는 '양불 괴어천 부부작어인'이 바로 인간의 본성을 얘기할 때 자주 거론되는 대목이다. 윤동주가 '서시'에서 노래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이 바로 군자삼락의 제이락에서 나온 말이다. 양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

판단 능력이다. 선한 일을 할 때는 기쁘지만 악한 일을 하면 마음의 고통과 가책을 느끼게 하는 게 양심이다. 철학자 칸트는 양심을 '내적 법정'에 비유했다. 양심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도덕의 재판소기에 자신을 법정을 불러내어 심판하고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것이다.

인간이 악을 행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된다. 남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신의 양심을 속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선거판을 보면 양심의 가책을 실증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곳곳에서 법을 위반한 입지자들이 구속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

들도 법을 위반하는데 재수가 없어서 중도하차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에는 우리 선거판이 너무 혼탁해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선량(善良)한 선량(善良)들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고경석 사회2부장 ksgo@kwangju.co.kr

양심(良心)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중고칼럼



박병주

인간이면 누구나 다 이상과 꿈을 가지고 살기 마련이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이상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 부단히 사고하고 노력하고 행동하는 데 있다. 인간이 제일 무서워 할 때는 희망이 끊어진 순간이다. 희망이 없는 인간은 크게 좌절하여 스스로 자기 생명을 포기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파괴적인 행동을 저지러 수 있다.

옛날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폐기 분이 좋아서 호탕하게 부하들에게 선물을 베풀고 있었다. 어떤 부하에게는 빵을, 어떤 부하에게는 재산을,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에 있는 지위를 주었다. 이 일

이상과 현실

을 보고서 대왕의 친구가 말했다. "이렇게 하시면 폐하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게 아닙니까? 그때 대왕은 "아니, 그렇지 않아"라고 대답하며 하는 말이 "가장 소중한 것은 틀림없이 남겨 두었다. 희망을 남겨 두었으니까 걱정 없네"라고 했다.

이상과 꿈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다. 우리가 희망에 살지 않고 추억 속에 살 때, 그 삶은 하나의 도피적인 삶이요, 죽은 삶이라 해야 좋을 것이다. 이상을 갖고 산다는 것은 새로운 내일을 창조해 가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이상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인 만족은 충족시킬 수 있지만 이웃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면 그것은 갖지 않을만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공통적인 민족적 이상과 꿈이 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남북통일이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인내와 희생을 치러 왔다. 우리의 지금까지 경험, 특히 이번이 일어난 천안함 침몰사건은 이 두 가지를 성취해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깊이 체감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남북통일이 두 가지를 성취해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내와 희생 그리고 지혜와 성숙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한다.

희의와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지난 10년 동안 남과 북은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경제적 지원을 통해 상당부분 갈등을 해소했다고 생각했다. 이 사건은 위장된 평화였음을 알게 되었다. 이제 민족적 이상과 꿈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할 것 같다. 더 큰 희생 없이 진통의 과정이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가기 위해 현실적으로 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들이 있음을 깨닫게 한다.

결코, 폭력과 혁명으로 자유민주주의와 통일을 성취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방법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기존 질서만 보존하고 지키려는 사람들의 의식과 사고가 너무 남고 고루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고 적응해 갈 수 있는 자기 개혁이 필요하다.

우리의 과거와 같은 낡은 이념, 생활양식, 방법을 가지고 현실의 질서를 보존해 가려고 한다면 역시 우리가 원하는 것들 모두를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철저한 자기 포기과 자기희생과 함께 이웃을 더 많이 생각하는 마음과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광주 열린 교회 목사>

기고



김종효

정부는 귀금속 등 상품거래 활성화화를 위해 2011년 '한국상품거래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밀수 등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금이 전체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해 투명성 확보가 시급한데다 각종 원자재 가격의 급등하도 상품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품거래소는 반드시 '광주'에 설립되어야 한다. 시는 민선 3·4기 들어 전략산업 육성과 수출 100억불 달성 등 비약적인 경제발전 성과를 바탕으로 동북아 경제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과 물류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아야한다는 인

투어져야 한다. 둘째, 사회적으로는 국가 균형발전 관점에서 부산의 금융위주 선물거래소(KRX)에 대칭되는 호남권 상품거래소의 설립이 필요하고, 특히 호남의 금융시장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돼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당위성을 바탕으로 '동북아 상품거래소' 광주 유치에 대해 다시 한번 시장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경제계 대표, 언론계, 학계 등을 망라한 지역지도자 40여명으로 '동북아 상품거래소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오늘 출범하게 된다.

동북아 상품거래소, 반드시 광주로

식 아래 상품거래소 유치를 준비해왔다. 지난 2007년 9월, 상품거래소 설립 유치를 위한 전담 테스크포스를 운영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유치 타당성 논리를 개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그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동북아 상품거래소' 광주 설립이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지역 관·학·연의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유치기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작년 10월 '광주상품거래소 설립 타당성 분석'에 관한 용역을 통해 유치가 따른 이론적 체계를 구축했다. 해당 중앙부처 방문 등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 활동을 전개하고 수차 설명회를 개최하여 광주 유치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유치 분위기를 조성하여 왔다.

상품거래소를 호남권 특히 우리 광주시에 설립하여야 하는 당위성으로는 첫째, 정치적으로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만큼 현 대통령의 임기 안에 광주상품거래소 설립을 위한 행정적, 입법적 절차와 예산 확보 등이 반드시 이

이런 출범식을 계기로 그동안 광주시가 보여준 총체적인 유치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향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동력으로 삼게 될 것이다. 광주상공회의소가 유치 추진의 전면에 서게 됨으로써 민간부문의 효율적인 추진력이 더해져 유치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북아 상품거래소의 광주 설립은 우리 지역의 고용증대효과를 물론 컨벤션 효과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거래은행 지점의 부흥 지역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 그리고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중장기적인 성장기반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 될 것이다.

특히 서울의 '증권거래소'와 부산의 '선물거래소' 그리고 광주의 '상품거래소'의 금융 3각축 형성은 국가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며, 우리 지역의 미래 금융산업과 물류산업 발전의 핵심동력이 됨으로써 광주시의 미래 발전을 견인해 나갈 것이다.

<광주시 경제정책과장>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